

식량정책실장, 본격 휴가철 대비 국경검역 및 방역관리 상황 점검

- 인천공항 검역, 강화·옹진 가축방역 현황 점검 및 검역관·방역관 등 격려

박정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6월 2일(화) 인천 국제공항을 방문하여 인천 지역의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와 중국에서 발생한 SAT1형 구제역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한 국경검역 현황을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최근 중국 등에서 새로운 유형(SAT1형)의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강화군·옹진군 등 접경지역 11개 시·군에 대해 6월까지 백신접종(SAT1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격 휴가철이 도래하기 전에 국경검역 및 방역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중국 2건(신장위구르자치구, 간쑤성)(3.28일), 몽골 1건(5.21일)

이날 박정훈 실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인천광역시로부터 국경검역 및 방역관리 현황을 보고받고 축산관계자 소독, 휴대축산물 X-ray 검색 등 국경검역 현장을 직접 점검하였다.

박 실장은 현장에서 국경검역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축산관계자와 국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을 적극적이고 반복적으로 홍보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국가 간 인적·물적 교류가 증가함에 따라 언제든 빈틈이 발생하면 가축전염병이 유입될 수 있다며, 현장 최전선의 검역관과 가축방역관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구제역방역과	책임자	과 장	김정주	(044-201-2531)
		담당자	사무관	최운영	(044-201-2540)